

조선시대 여성의 가내외에서의 일상생활*

- 조선후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을 중심으로 -

Women's Indoor and Outdoor Everyday Life of the Late Choson Period as Expressed in Paintings*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부 교수 김 성 희

Division of Living Science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ociator professor : Kim, Sung-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가외에서의 일상생활 |
| II. 연구방법 | V. 결론 |
| III.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men's indoor and outdoor everyday life including their housework, labor and leisure of the late Choson period as expressed in paintings. Women's everyday life was classified into their indoor and outdoor life according to the custom of Naeoe, which had confined women's activities in the outdoors. This study analyzed 93 paintings depicting the true life of peopl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Choson period was a conservative society dominated by Confucian custom that confined women in the home, most women spent much of their time in the outdoors carrying water, washing clothes and doing farm work. Some common women participated in marketing household products, peddling and managing a drink shop. Especially, servant women such as Kineo, Muneo and Youneo labored in public offices or private place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isconception should be corrected that traditional women's sex role had been confined exclusively in the home.

주제어(Key Words): 조선시대(Choson), 일상생활(everyday life), 가사노동(housework), 성역할(sex role)

Corresponding Author: Sung-Hee Kim, Division of Living Science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315
Maegokdong Sunchoeon, Jeonnam 540-742 Korea Tel: 82-61-750-3674 E-mail: ksh@sunchon.ac.kr

* 이 논문은 2003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I. 서론

여성은 일상적으로 밥을 짓고 자녀를 돌보며 가계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휴식도 취한다. 가사노동을 포함한 일상은 매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 되므로 연구의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성의 삶도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상의 변화를 아는 것은 여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흔히 전통사회 여성의 일상과 현대사회 여성의 일상을 비교할 때 전통사회의 여성은 내외규범의 존재로 확동에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여성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조선시대의 여성은 가외(家外) 생활과는 유리된 채 폐쇄적으로 가내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한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1999 등).

내외규범은 성리학적인 사회윤리를 일반인에게 정착시키고자 조선초기 지배층이 권장한 규범이었다. 여성의 실절을 우려하여 문밖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규제하며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는 행동 규제법이었다. 내외규범은 풍속의 교화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의 생활을 통제했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여성의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조선초기 여자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삶을 영위하였다가 성리학적 사회윤리가 조선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여성사가들은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여성이 통제된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외법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거의 전 여성의 일상생활을 통제했다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사회 여성의 성역할을 말할 때 내외법의 영향으로 여성의 일상생활은 가내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일도 가사노동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생산활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쉽게 간과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이

가내와 가사노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고 가내에서 다양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성리학적인 윤리규범이 도착하는 시기인 조선후기의 회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사노동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문 밖의 가외에서 이루어졌다. 물을 길어 오고 빨래하는 것이 가외에서 이루어졌고, 농사가 남성의 일이라는 하였지만 여성들도 들과 논에서 남성과 더불어 가외에서 일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 장에 나가 가정생산물을 교환하고 행상을 하거나 주막을 경영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궁이나 관 또는 타가(他家)에서 일하는 여성도 적지 않았고 가내에서도 직조로써 가계와 사회경제 운영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내외에서 생활하는 중에 여성은 외부 남성과 상면할 기회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회화를 보면 가외의 빨래터나 우물가, 밭에서 여성이 외부 남성과 만나는 장면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가내 가정의례 행사에서도 남녀 수십명이 함께 참여하여 남성과 상면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은 내외규범에 따라 주로 가내에서 생활하였고 가외생활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간주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역사 연구에서는 인물이나 사건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연식, 2001; 한국역사연구회, 1997 등). 특히 미시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역사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일상의 역사를 밝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Utrio(2000)는 초상화와 풍속도, 사진 등 시각자료를 분석하여 서양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여성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고문서류 등의 문헌을 사용하여 여성의 일상을 연구하고 있으나 회화를 주된 연구자료로 하여 분석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술사에서 회화를 이용하여 조선시대 여성상이나 일상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미술사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회화의 기법이나 소재, 양식이 대부분이다(신혜원, 1998; 황세은, 2002; 김기복, 2001 등). 여

성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회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녀가 주된 분석대상이고, 노동이 분석되는 경우도 있으나 농업과 직조 노동만을 조명하여 가사노동과 휴식을 포함한 일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관한 문헌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회화는 여성의 삶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사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헌자료는 양반에 의해 기술되어 일반여성의 일상을 포함하지 못하고 규범적으로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풍속화를 포함한 회화는 민간의 생활상을 전하므로 양반중심의 당위적 서술에서 벗어나 일반여성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남성중심의 성리학적 윤리규범이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회화를 통해 검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화를 통해 여성의 일상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사를 기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는 가사노동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회화는 가사노동의 노동과정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 분석에 앞서 기초작업으로 회화가 정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여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사노동은 흔히 누락되었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포함한 여성의 일상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한다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생활을 회화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의 일상생활의 범위와 다양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내외규범의 실제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상을 가내와 가외로 범주화하여 그 구체적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여성사 연구 중 특히 가사노동사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내외규범에 따른 여성의 일상생활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오지 못한 가외에서의 다양한 생활을 밝혀낼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이 후기의 내외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가내와 가외에 걸쳐 다양하게 영위되었다는 것

을 밝혀냄으로써 지금까지 성역할 교육에서 당연시 해오던 전통사회 여성에 대한 협소한 역할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대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II. 연구방법

1. 분석의 틀과 연구의 한계

인간의 일상은 Lefebvre(1961: 박재환, 1994 재인용)에 의하면 존재의 3가지 차원인 욕구, 노동, 놀이 즉 가정생활과 경제활동, 여가의 세 차원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여성의 일상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여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여성의 삶은 주로 풍속, 제도, 의복이나 조리와 같은 특수하고 구조적이며 물적인 것을 통해 파악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여가로 이루어진 일상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으로서의 직조노동이나 가사노동이 연구되기는 하였으나(강소혜, 1999; 정병모, 1991; 김성희, 2001; 김성희, 2002 등),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여가를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여성의 일상을 규제한 내외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의 가외생활에 실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는지를 회화를 통해 고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일상생활을 가내와 가외에서의 활동으로 영역을 범주화하고 각 영역에서의 일상생활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여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표 1).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자급자족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을 가족부양에 사용하였으므로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여가를 명확히 범주화시켜 구분해 보기는 쉽지 않다. 농사나 직조의 경우 가족의 욕구를 위해 가사의 일환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그 생산물은 조세납부나 부의 축적, 시장에서의 물물교환, 가게운영에 사용되어 오늘날의 경제활동과 같은 성격으로 수행하기도 하

〈표 1〉 회화에 나타난 가내외에서의 일상생활

종류	작가	제목	제작연도	그림의 내용	
				가내생활	가외생활
식생활과 관련된 일	조영석	절구질	18세기	절구질	.
	유운홍	길쌈	19세기	맷돌질	.
	김준근	맷돌질	19세기	맷돌질	.
		밥꾸고 상차리기	19세기	밥짓기	.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	물동이 이고 가기
	김홍도	평양감사향연도	18세기	.	물동이 이고 가기
	김득신	시골양반집	18세기	.	물동이 이고 물 길어오기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	개울가의 물 퍼담기
	김홍도	우물가	18세기	.	공동우물에서 물 길기
	이한철	세시풍속도병	19세기	.	눈에 점심 내리기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	눈에 점심 내리기
	김홍도	수경엽출	18세기	.	눈에 점심 내리기
	작자미상	경직도	19세기	.	눈에 점심 내리기
	조영석	점심	18세기	.	농부에게 점심 주기
	김홍도	점심	18세기	.	농부에게 점심 주기
김득신	점심	18세기	.	농부에게 점심 주기	
가사노동	유운홍	길쌈	19세기	빨래널기	.
	조영석	바느질	18세기	마름질, 손바느질	.
	신윤복	다림질	19세기	숫다리미질	.
	김준근	옷감다루기	19세기	다림질, 다듬이질, 마름 질, 바느질, 마름질	.
	김홍도	빨래터	18세기	.	계곡에서 세탁하기
	신윤복	단오놀이	19세기	.	계곡으로 빨래하러가기
	신윤복	계변가화	19세기	.	개울가에서 세탁하기
	작자미상	풍속화첩	19세기	.	개울가에서 세탁하기
육아	윤덕희	오누이	18세기	누이가 동생돌보기	.
	김홍도	길쌈	18세기	할머니의 아기돌보기	.
	우진호	경직도병	19세기	소녀의 아기돌보기 할머니의 아이돌보기	.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할머니의 아기돌보기	.
	김홍도	회혼식	18세기	.	품팔면서 자녀돌보기
	김홍도	점심	18세기	.	눈에서 젖먹이기
	김득신	점심	18세기	.	눈에서 젖먹이기
	마군후	나물캐는 여인	19세기	.	눈에서 젖먹이기
	김홍도	파안홍취	18세기	.	아기업고 목화따기
	김홍도	춘경우경	18세기	.	아기업고 나물캐기
가정의례	작자미상	회혼례도	18세기	노부부 회혼 축하연	타가 의례 참석하기
	김홍도	모당 홍이상 평생도	18세기	회혼식	타가 의례 참석하기
	작자미상	담와 흥계회 평생도	18세기	회혼	타가 의례 참석하기
	작자미상	회혼례첩	18세기	회혼례	타가 의례 참석하기
	작자미상	평생도	20세기	혼인식	타가 의례 참석하기
	김홍도	초도호정	18세기	돌잔치	타가 의례 참석하기

<표 1> 계속

종류	작가	제목	제작연도	그림의 내용	
				가내생활	가외생활
직조와 관련된 일	심사정	전가락사	18세기	직조	.
	김홍도	길쌈	18세기	베짜기, 씨날기	.
	김홍도	자리짜기	18세기	물레질	.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베짜기	.
	작자미상	치사	20세기	베짜기	.
	우진호	경직도병	19세기	물레질, 베짜기, 누에치기	.
	김홍도	경직도	18세기	직조, 물레질	.
	유운홍	길쌈	19세기	직조	.
	작자미상	경직도	19세기	누에치기	뽕잎따기
	김홍도	파안홍취	18세기	.	목화따기
농업과 관련된 일	이한철	세시풍속도병	19세기	.	모내기
	김홍도	농가시찰도	18세기	.	김매기
	윤두서	나물캐기	17세기	.	나물캐기
	윤용	나물캐는 아낙	18세기	.	나물캐기
	마군후	나물캐는 여인	19세기	.	나물캐기
	김홍도	춘경우경	19세기	.	나물캐기
어업과 관련된 일	작자미상	행려풍속도	19세기	.	나물캐기
경제활동	조영석	어선도	18세기	.	그물 손질하기
	김홍도	장터길	18세기	.	장에 가기
	김득신	장터가는 길	18세기	.	장에 가기
	작자미상	행려풍속도	19세기	.	장에 다녀오기
	김준근	장터	19세기	.	장에서 사고팔기
	신윤복	어물장수	19세기	.	생선 행사하기
	김홍도	매엽파행	18세기	.	소금 행사하기
	김홍도	기노세련제도	18세기	.	행사하기
	김홍도	부벽루연회	18세기	.	행사하기, 술팔기
	김득신	태수의 행차	18세기	.	술팔기
	김홍도	노방노파	18세기	.	술팔기
	작자미상	경직도	19세기	.	주막에서 손님받기
	신윤복	주막	19세기	.	주막에서 손님받기
	김득신	주막	18세기	.	주막에서 손님받기
김홍도	주막	18세기	.	주막에서 손님받기	
김준근	주막	19세기	.	주막에서 손님받기	
궁녀로 일하기	김득신 외	화성능행도병	18세기	.	관리접대 및 시중
기녀로 일하기	작자미상	기축년진찬도병	19세기	.	관리접대 및 시중
	작자미상	동래부사접왜사도	18세기	.	사신의 접대
	김홍도	태수의 행차	18세기	.	관리시중
	김홍도	평양감사향연도	18세기	.	관리접대 및 시중
	작자미상	이원기회도	18세기	.	관리시중
	작자미상	수갑계첩	19세기	.	관리시중
	작자미상	기방쟁음	19세기	.	기방유혹업 종사
	신윤복	홍루대주	19세기	.	유혹업 종사

〈표 1〉 계속

종류	작가	제목	제작연도	그림의 내용			
				가내생활	가외생활		
경제활동	기녀로 일하기	김득신	계회	18세기	.	유홍업 종사	
		김희경	석천한유	18세기	.	유홍업 종사	
		신윤복	뱃놀이	19세기	.	유홍업 종사	
		신윤복	후원놀이	19세기	.	유홍업 종사	
		신윤복	화류놀이	19세기	.	유홍업 종사	
		작자미상	후원유연	18세기	.	유홍업 종사	
		작자미상	야연	19세기	.	유홍업 종사	
	무녀로 일하기	신윤복	무녀신무	19세기	.	굿하기	
		김준근	무녀굿	19세기	.	굿하기	
	유녀로 일하기	작자미상	선암사 감로탱화	18세기	.	사당패에서 춤추기	
		작자미상	봉서암 감로탱화	18세기	.	사당패에서 춤추기	
		작자미상	가두매점	19세기	.	사당패에서 춤추기	
		작자미상	재인	19세기	.	유랑하며 춤추기	
		김준근	사당판놀음	19세기	.	사당패에서 춤추기	
	여가생활	가사소일	김두량	사계산수도	18세기	베짜기	.
우진호			경직도병	19세기	과실따기	.	
독서		윤덕희	독서하는 여인	18세기	책보기	.	
		게임	김준근	쌍륙두기	19세기	쌍륙하기	.
			김준근	골패두기	19세기	골패두기	.
			신윤복	단오놀이	19세기	.	그네타기
			김준근	단오추천	19세기	.	그네타기
김준근			널뛰기	19세기	.	널뛰기	
나들이		작자미상	경직도	19세기	.	가족과 나들이	
		김홍도	소를 탄 촌부	18세기	.	가족과 나들이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	집밖 나들이	
		신윤복	처녀 쓴 여인	19세기	.	집밖 나들이	
		신윤복	부녀자들의 나들이	19세기	.	질 나들이	
구경하기		신윤복	무녀신무	19세기	.	무당굿 구경	
		김준근	무녀굿	19세기	.	무당굿 구경	
		작자미상	달구경	19세기	.	달구경하기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	관아행렬구경	
		김홍도	부벽루연회	18세기	.	관아행사구경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일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관점에서 직조와 농업, 어업, 상업, 특수직의 생산활동을 경제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은 사회계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양인 여성과 달리 양반 여성은 육체적인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관리적인 일을 주로

하였다. 가내에 비자(婢子)가 있는 양반 여성의 경우 직접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직조를 하는 것은 부녀의 일로 당연시되었다(김성희, 1999).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을 분석함에 있어 계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회화 속에서 신분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양반여성이 모델이 되는 경

우는 이들이 노동하는 계층이 아니고 엄격한 내외 규범의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양반여성이 회화에 소재로 등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을 다른 신분계층과 구별해내는 쉽지 않다.

조선시대는 복식급제가 있어 의복으로 신분을 구분하기는 하였다. 양인 부녀는 양반 부녀와 달리 포(袍)를 입지 못하였고 쓰개는 장옷, 천의에 한했고, 삼회장 저고리를 입지 못하였으며 치마도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었다. 특히 하층 계급은 '거들치마'라 하여 치맛자락을 치켜 여미어 입어 속옷이 바깥에 나타나 보이게 입어 그 신분을 표시하였고,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두루치'를 흔히 입었다. 그리고 천인으로서 기녀나 의녀는 일반 천인과 달리 흑색 장삼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삼회장 저고리나 겹치마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나 반회장 저고리는 허용되었다. 치마는 홀치마로 오른쪽으로 여미어 양반부녀와 구별하였다(백영자, 1998).

이처럼 계급에 따라 복식에 급제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회화에서 신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양인 여성의 복식은 양반계급 여성의 복식과 사치억압 이외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유희경, 1983), 평양감사 환영도에서는 기녀가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있어 삼회장저고리가 허용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어(조효순, 1995) 복식급제를 기준으로 신분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치마를 여미는 방식도 경북지방에서는 오른쪽으로 여미는 것이 양반의 표시였고 충남지방에서는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양반의 표시였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조효순, 1995). 또한 치마꼬리에 따라 당파가 구분되던 때도 있었다 하므로(조희진, 2003) 의복으로서 신분계층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치마와 저고리 외에 장식류로서도 신분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이에 의한 분류도 용이하지 않다. 서민여성은 장식에서 주옥, 보패류, 금, 은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고 복색에 있어서는 황, 자, 홍색을 비롯하여 회(灰), 백(白), 옥(玉)색 등에 금제가 있었다. 의복재료는 비단을 입지 못하고 저, 마포, 목면이 주었다(유희경, 1983). 그러나 이것도 부유층과 빈곤층

에 따른 차이였고, 기녀도 비단을 입었다 하고(조효순, 1995), 회화의 색이 퇴색하여 색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층구분의 지표로 삼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노동은 주로 노비계층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조선 전기에는 전인구의 1/3이상 또는 거의 1/2을 점유하고 있었고(지승중, 1995), 조선중기에는 전인구의 30-50%를 차지하고 있었다(김용만, 1997). 이들 비자 중 주가(主家)에서 일하던 사노비 여성은 일반여성과 마찬가지로 주가인 가내에서 가사와 논밭일 등 잡일을 맡아 하였고 관노비는 궁이나 관에서 궁녀, 의녀나 기녀로서 특수한 일들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 중기까지 신분강제에 의해 무상으로 노동하면서 생계를 보장받았지만 17-18세기에 무상노동이 고공화(雇工化)되면서 유상노동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였다(김성희, 2000). 따라서 회화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내 또는 가외 노동자들 중에는 가내노비나 고공노비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계층을 회화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나 그 구분이 매우 어렵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의 가내외 생활영역에서의 일상의 차이를 보려는 것에 연구목적 있으므로 계층을 범주로서 고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계층에 따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의 일상생활이 양반계층이 서술한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양반계층에의 편이가 있어 왔다고 본다면 본 연구는 민간의 생활상을 소재로 한 회화를 분석하므로 역사적 서술에서 소외되어 있던 일반 양인계층을 포함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2. 분석자료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풍속화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가장 융성하였다(정병모, 1998; 이태호,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후기 18-19세기를 전후해 그려진 회화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선후기는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신분사회 구조가 이완되는 시기이다. 이

런 사회 변화 속에서 민중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새로이 부상하는 부민층의 교양적 요구에 따라 이전에는 소재로 삼지 않았던 민중과 양반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는 회화가 발달하였다.

풍속화는 조선전기에는 문인화에 미치지 못하는 그림으로 평가받아 속화로 분류되어 발전하지 못하였다. 풍속화가 문인화의 상대적 화풍이 아닌 독립적인 화풍으로 발전하는 때는 실학이 발달하고 사회적인 부가 증가하는 영정조 후기부터다. 17·18세기에 선비 화가인 윤두서와 조영석에 의해 민중생활이 회화적 소재로 포착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는 화원 화가인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이 풍속화의 대가로 활약하였다. 이들 외에 조선 후기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풍속화를 그린 화가로는 윤두서, 김두량, 심사정, 윤희, 김윤겸, 김희겸, 신한평, 마군후, 유운홍, 이한철, 김재근 등이 있다.

이들의 회화는 문인화에서는 소재로 삼지 않는 여성과 노동 등을 소재로 삼아 당대의 여성과 관련된 생활풍속을 잘 전해주고 있는데 풍속화가 일상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반영하고 있는지 그 정밀한 통속성은 이규상(1727-1799)의 '화주록'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김홍도는 세속의 모습과 양태를 잘 그렸는데 세상에서는 속화체(俗畫體)라고 일컫고 있다... 오늘날 통속적인 형상을 그렸는데 그 대상의 형상이 빼어박은 듯이 닳았다...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복식이라든가 신운(神韻) 같은 것이 터럭 하나 만큼도 그 진면목을 어그러뜨림이 없었다(정병모, 2001 재인용).'

조선시대 회화에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풍속화 외에 빈풍칠월도류(飢飢七月圖流),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성시전도(城市全圖), 궁중과 관아 행사도, 계획도(契會圖), 평생도(平生圖), 감로도(甘露圖)가 있다(정병모, 1998). 빈풍칠월도류와 삼강행실도류는 궁중에서 임금과 백성의 교육을 위해 보급한 것으로 생활상을 전하기는 하나 조선초기부터 그려졌고 중국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의 생활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성시전도, 궁중과 관아 행사도, 계획도, 평생도, 감로도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각 회화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시전도는 도성의 전경을 그린 것이므로 조선시대 거리의 풍경과 일상을 보여주고, 궁중과 관아 행사도는 궁중과 관아의 각종 행사와 의례를 기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왕실과 관리의 일상의 반복성을 보여준다.

계획도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문인들의 계획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계획에는 70세 이상의 덕망이 높은 정이품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원로사대부들로 구성된 기로회 혹은 기영회와 동갑이나 관아의 동료들로 이루어진 일반문인계획회가 있다. 계획도에는 관아와 양반의 실내 혹은 실외에서의 일상이 그려져 있고 당시 유행하는 풍속이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속화적인 요소를 갖는다.

평생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의례인 돌잔치, 혼인식, 회혼례 등을 그려 병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각 장면에는 당시 사람들이 일생동안 겪는 생활변화가 그려져 있어 생활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감로도는 중생이 공덕을 쌓으면 불보살이 베푼 달콤한 이슬인 감로로 말미암아 극락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당시의 속세 인간의 여러 다양한 삶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려져 있다. 불교의 이념을 형상화한 것이지만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생활 풍정을 그리고 있어 풍속화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화 중 여성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회화 93점을 채택하여 일상생활을 가사노동, 경제활동, 여가생활로 분류하고 각 일상생활의 영역을 그림의 내용에 따라 가내와 가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

III. 가내에서의 일상생활

1. 가내에서의 가사노동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내에서 밥짓기와 의복마련,

육아 등 매우 한정된 일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회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이 수행한 가사노동을 보면 식생활과 관련된 일, 의생활과 관련된 일, 육아, 가정의례 등 매우 다양하며 그 범위도 가내와 가외에 걸쳐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회화에 나타난 식생활과 관련된 일을 보면 조선 여성들은 절구질하기, 맷돌질하기, 밥짓고 상차리기, 물길어 오기, 눈에 점심 나르기를 하였고 의생활과 관련된 일로 빨래하기, 빨래널기, 마름질하고 손바느질하기, 숯다리미질하기, 다듬이질하기를 하였다. 육아와 관련된 일로는 아기돌보기, 젖주기, 업어주기, 일하면서 돌보기를 하였다. 가정의례와 관련된 일로 회혼례, 혼인식, 돌잔치를 마련하고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헌에서는 눈에 점심나르는 것과 가정의례를 마련하고 참석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회화에서는 이러한 일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화에 나타나는 가외에서 수행되었던 가사노동에는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으로는 물길기가 있다. 눈에 점심 나르는 것도 가외에서 하는 일이었고 타가의 가정의례에 참석하는 일도 가외에서 하는 일이었다. 가사노동은 흔히 가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만 곡식쟁기, 밥짓기를 제외하고 가외에서 수행되는 노동도 적지 않았다.

회화에 나타난 가사노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곡물쟁기는 회화에서는 절구, 맷돌을 이용하고 있고 혼자 또는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조영석(1686-1761)의 '절구질' 그림에는 한 여인이 처마 밑 마당에서 나무공이로 절구질을 하고 있고, 유운홍(1797-1859)의 그림으로 전하는 '풍속도' 중 '길쌈'에는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맷돌을 갈고 이를 손녀가 지켜보며 돕고 있다. 김준근(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맷돌질'에도 두 여인이 마주 앉아 맷돌을 갈고 있고 한 여인은 손에 바가지를 들고 물을 부어주고 있다. 밥짓기와 관련된 '밥푸고 상차리기' 그림에는 앞치마를 두른 부인이 밥을 푸고 딸로 보이는 소녀가 개다리 소반에 상을 차리고 있다.

의생활과 관련된 일로 조선시대 여성은 바느질하

기, 세탁, 다듬이질, 다림질, 직조를 하였다(김성희, 2002). 회화에서 여인들은 의생활과 관련된 일로 세탁, 바느질, 다림질, 마름질, 바느질, 다듬이질, 직조, 누에치기, 목화따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가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은 바느질하고 다림질, 다듬이질하기였다. 세탁하기와 뽕잎따기, 목화따기는 가외에서 수행하였다. 세탁은 개울가나 강가 등 가외에서만 수행한 것이 그려져 있다. 가내에서는 빨래를 너는 모습만 볼 수 있다. 유운홍의 그림으로 전하는 '풍속도' 중 '길쌈'에는 한 여인이 뒤뜰에 매인 빨래줄에 빨래를 널고 있다. 개울이나 강에서 해 온 빨래를 가내에 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내에서 바느질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조영석의 '바느질'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어머니와 딸 둘이 모여 앉아 어머니는 가위로 마름질을 하고 딸들은 손바느질을 하고 있다. 신윤복(18세기 중엽-19세기 초반)의 '다림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두 여인이 마주 앉아 시어머니는 옷감을 잡아당겨주고 며느리는 숯다리미로 옷을 다리고 있다. 김준근의 그림에는 6명의 여인이 다림질하고 다듬이질하고 마름질하고 있다. 한쪽의 두 여인은 마주 앉아 숯다리미로 다림질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의 두 여인은 마주 앉아 두 개의 방망이로 다듬이질 위의 옷감을 두드리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 여인이 마주 앉아 바느질하고 마름질을 하고 있다.

회화에서는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아기에게 젖을 주거나 업어 주고 돌보는 육아를 하는 장면도 많이 등장한다. 신한평(1726-1809)의 '젓먹이기'에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고 그 옆에 조금 큰 아들은 울며 떼를 쓰고 큰 딸 아이는 다소곳이 앉아 기다리고 있다. 신윤복의 '아기 업은 엄마'에는 부인이 아기를 업고 있다.

육아는 가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논이나 밭, 품을 팔고 있는 타가와 같은 가외에서도 행해졌다. 회화에서 논일을 하거나 밭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는 중에 육아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홍도의 회혼식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서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다. 타가의 회혼례 준비에 품을 팔고 있는 여성이 자녀도 동반하여 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홍도의 '점심', 김득신의 '점심', 마군후의 '나물캐는 여인', 김홍도의 '파안홍취', '춘경우경'에는 논에서 일하다 아기에 젖을 먹이는 모습, 아기를 업고 목화를 따고 나물캐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보기는 어머니뿐 아니라 딸과 할머니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윤덕희(1685-1776)의 '오누이'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땀을 땀 누이가 어린 사내 동생을 안으려는 것이 그려져 있다. 김홍도(1745-1816)의 '길쌈'에는 며느리가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는 동안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돌보고 있다. 우진호(1832-?)의 '경직도병'에는 안채 후원에서 부인들이 감을 따고 있고 한 소녀가 아기를 업고 있다. 본채에서는 여인들이 직조일을 하는 동안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 20세기의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생도' 중 '치사'에서도 안채에서 부인이 베를 짜고 있는 동안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지켜보고 있다. 주부가 가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가족이 육아를 맡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화 속의 조선시대 여인들은 혼례식이나 회혼식, 돌잔치 등 가정 의례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도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가사노동 중에는 제사모시기가 중시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제사보다 현존하는 가족을 위한 가정의례와 관련된 그림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례에는 타가의 행사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가외에서의 가정의례를 위한 일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회화에 그려진 가정의례에 참여하는 부녀의 수는 보통 10여명이 넘고 있다. 여성들이 가외의 일가친척의 의례에 참여하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여한 부녀의 수는 대체로 남성의 수와 비슷하였고, 대개는 대청에서 행해지는 의례에 오른 편에는 남자, 왼편에는 여자들로 성을 분리하여 무리지어 참여하였다. 구경하는 무리에 아이를 업은 부녀가 보이는 경우도 많은 데 이들은 주가(主家)의 행사를 돕기 위해 동원된 가내노비들이거나 품을 팔고 있는 여인 혹은 타가의 행사를 구경나온 부녀

들로 보인다.

18세기 작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회혼례도' 그림을 보면 양반 대에서 결혼 60주년을 맞은 노부부를 축하하는 자리에 왼쪽으로는 친인척으로 보이는 다채로운 색옷을 입은 부녀들이 43명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는 흰도포에 갓을 쓴 일가 남자들이 22명이 모여 있다. 대청 아래에는 일하는 아낙과 구경 나온 아낙 33명과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이 그려져 있다. 김홍도의 '모당 홍이상 평생도' 중의 '회혼식'에도 녹색치마와 홍색치마를 입은 부녀 10여명이 대청마루의 신부 쪽에 보이고, 신랑쪽에는 갓을 쓴 남자들이 15여명 서 있다. 마당에는 행주치마를 두른 여인 6명과 그들의 자녀가 다섯 명 보인다. 한 소녀는 먹을 것을 들고 문 밖의 마부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18세기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담와 흥계회 평생도'의 '회혼'에도 대청에 집안 부녀자가 30여명, 남자가 15명 좌우에 모여 있고 마당과 행랑채 사랑채에는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20여명 모여있다. 18세기 작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회혼례첩'에는 노부부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 오른쪽에는 각색의 옷을 입은 가족으로 보이는 여인들이 11명 앉아 다른 여인 3명의 음식시중을 받고 있고 왼쪽에는 남자 가족이 14명 앉아 있다. 마당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는 여인이 16명 보인다. 20세기에 그려진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평생도' 중 '혼인식'에는 대청에서 신부가 시부모에게 절을 하고 대청과 마당 왼쪽에 남자 32명 오른쪽에 여자 23명이 이를 구경하고 있다. 여자들이 행랑채에 음식을 나르고 있다. 김홍도의 '모당 홍이상 평생도' 중 '초도호정'에는 양반댁의 돌잔치가 3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루어지고 있다. 대청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고, 마당에는 노비 또는 구경나온 여인들로 보이는 아낙 4명이 아이를 업거나 데리고 나와 서있다.

2. 가내에서의 경제활동

조선시대 직조는 농업 못지 않게 중요한 생산활동

동으로 여성의 주요한 노동이었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김성희, 2001). 직조물은 국폐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었고, 조세로써 국가재정의 중요 원천이었으며 가계경제 운영에 사용되는 물물교환의 중요 품목이었다.

조선시대 성별분업은 가내와 가외의 공간적인 영역에서 있었다기보다 남자는 밭갈고 여자는 길쌈하는 생산영역에서 있었다. 이익(1681-1763)은 “곡식은 남자로부터 생산되며, 포백은 여자로부터 생산된다”고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90). 회화에서도 여성은 직조하고 남성은 농사를 짓는 생산에서의 성역할구분을 볼 수 있다. 심사정(1707-1769)의 ‘전가탁사’에 아낙은 집안에서 베를 짜고 집 밖에서는 남자들이 벼타작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부녀들이 가내에서 직조하는 모습은 회화에 많이 볼 수 있지만 남성이 직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은 남성의 일인 농사짓기에 참여하였지만 남성은 직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조는 여성의 일로서 매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홍도(1745-1816)의 ‘길쌈’ 그림에 한 여인은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고 또 다른 여인은 씨날기를 하고 있다. ‘자리짜기’ 그림에는 부인이 물레질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자리를 짜고 아들은 책을 보고 있다.

직조는 생업운영의 수단으로서 남편의 가계부양을 보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양반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에게 권장되었다(김성희, 2001). 빈곤한 양반가에서 부인이 직조노동으로 가계를 운영하였으리라는 것은 김두량(1969-1763)의 ‘사계산수도’의 ‘가을겨울 전원행렬승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가집 별채에서는 부인이 베를 짜고 있고 사랑채에서는 양반으로 보이는 주인이 손님과 술잔을 나누며 거문고를 타고 있다.

부유한 양반 가정에서도 부녀들이 직조노동을 하였던 것을 회화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생도’ 중 ‘치사’ 그림에는 마당에 종2품 이상이 타던 초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반(權班)으로 보이는 가정의 안채에서 부인이 베를 짜고 있다. 대청에는 남편과 손님이 장기를

두고 있고 그 옆에는 동자가 화로에 부채를 부치며 주전자의 물을 끓이고 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디딜방아를 찼고 있어 직조도 하인이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주부가 직접 직조하고 있다.

직조는 일차적으로 가사의 일부로 가족원의 소비를 위해 주부에 의해 자급자족적으로 수행되었지만 18세기 후반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처부의 수단으로 여성들이 대거 동원되어 행해지기도 하였다(김영호, 1972). 직조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가내수공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 여인들이 직조일을 하는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조에 동원된 많은 여성들은 가내노비이거나 고용된 여성들로 추정된다. 19세기 농가의 평균 가족수가 4인을 약간 넘었다 하고, 대부분의 농가에는 1부(夫) 1부(婦)가 존재하였다 하므로(四方博, 1937; 김용섭, 1972) 회화에 보이는 2-3명 이상의 성인부녀들은 타가의 여성들로서 가외에서 일하는 여성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진호(1832-?)의 ‘경직도병’에 부유해 보이는기와집 본채 대청에서 여인 여덟 명이 물레질을 하고 베를 짜며 누에알을 고르고 있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전하는 ‘경직도’ 그림에도 세 명의 부녀가 직조일을 하고 있다. 별채로 보이는 곳에서 한 부인은 물레를 돌리고 있고 다른 부인은 실을 손질하고 한 여인은 별채 앞에 흐르는 개울가에서 실을 빨고 있다. 유운홍의 그림으로 전하는 ‘풍속도’ 중 ‘길쌈’에서도 여러 여인이 직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지붕에 박이 덩굴진 가을날 실내의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여인, 그 앞에서 실타래를 고르는 여인, 그녀에게 무엇인가 지시하는 여인, 마당에는 낄실에 풀을 칠하는 세 여인, 모두 여섯 명의 여인이 일하고 있다. 김준근의 ‘방적’ 그림에도 여섯 명의 여인이 씨아를 돌려 면화의 씨를 빼내고, 솜채로 솜을 두드리고, 무명화로 튕겨서 티를 제거하고 물레로 실뿔을 짓고 씨실꾸리를 만들고 있다.

직조는 가내에 마련된 별채에서 수행되었다. 유운홍(1797-1859)의 그림으로 전하는 ‘풍속도’ 중 ‘길쌈’에 베틀이 놓인 별채에서 여인들이 일하고 있고, 김두량(1696-1763)의 ‘사계산수도’의 ‘가을겨울 전

원행협승회'에도 사랑채 앞의 별채에서 부인이 베를 짜고 있다.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20세기에 그려진 '평생도' 중 '치사'에서는 안채에 마련된 별채에서 부인이 베를 짜고 있고 사랑채에는 할아버지가 비스듬히 누워 마당의 두 손자를 바라보고 있다.

직조는 주로 가내에서 수행한 경제활동이었지만 이에 필요한 뽕잎을 따오고 목화를 따는 일을 가외에서 하기도 했다. 작자미상(게르트루트 크라센 소장)의 19세기 중후반 '경지도' 중 '논갈이와 누에치기'에는 양반댁으로 보이는 집의 행랑채에서 3명의 부인이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고 있고, 집 밖에서는 여인들이 뽕잎을 따고 있다. 김홍도의 '파안흥취'에는 목화를 따는 두 부인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어린 아이를 업고 목화를 따고 있다. 이들을 지나가는 말을 탄 양반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훑쳐보고 있다.

3. 가내에서의 여가생활

조선시대 여성은 여가에 가사로 소일하거나 독서를 하고 나들이를 하며 구경경을 하거나 관아행사를 구경하고 세시풍속이 정한 날 그네를 타거나 널을 뛰고 달구경을 하였다. 여가생활도 가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외에서도 이루어졌다. 가내에서는 주로 가사로 소일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김두량(1969-1763)의 '사계산수도'의 '가을겨울 전 원행협승회'에 한가한 겨울날 부인은 베를 짜고 있는데, 남편은 손님과 술잔을 나누며 거문고를 타고 있다. 남자들이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여자들은 직조로 소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진호(1832-?)의 '경지도병'에는 소녀들은 안뜰에서 감을 따거나 직조를 돕고 있다. 여가에 놀이로서 하는 것이 가사의 일부이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그림에 행랑채에서는 아들로 보이는 두 소년이 서당선생과 글을 읽고 있다.

여자들은 가사를 수행하고 노동하는 것 외에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 일이 없었다. 이는 김홍도의 '서당'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 나오는 8

명의 학동 중에 여아는 보이지 않는다. 양반 여성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가에 독서를 하기도 하였다. 윤덕희(1685-1776)의 '독서하는 여인'에 삼회장저고리를 입은 양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그림이 그려진 간막이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있다.

김준근의 그림에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앉아서 골패를 하고 쌍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있다. 이는 기생을 그린 것이므로 골패와 쌍륙은 일반 여성의 놀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일반여성을 그린 그림에서 골패와 쌍륙을 두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외에 여인들의 놀이로서 다른 실내 놀이가 그려진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일상적으로 일반여성은 가내에서는 여가가 있을 때도 바느질, 직조 등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IV. 가외에서의 일상생활

1. 가외에서의 가사노동

조선시대의 여성은 가내에서뿐 아니라 가외에서도 가사노동을 했다. 곡식을 짚어 밥을 짓고 바느질하고 다림질하는 일은 가내에서 하였지만, 물을 길어오고 점심을 논에 나르고 나물을 캐고, 세탁을 하기 위해, 다른 집의 가정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품을 팔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회화에서는 여인들이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물은 식수로써 생활용수로써 거의 매일 사용되는 것이면서도 한 번에 떠올 수 있는 양은 물동이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물을 길어오기 위해 집 밖을 나서는 빈도는 하루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19세기에 그려진 작자미상(호암미술관 소장)의 '경기감영도'에는 도시의 풍정 속에 물동이를 이고 길을 가는 아낙네가 그려져 있다. 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중 '연광정연회'에도 연회가 열리는 성밖의 길거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두 명의 여자를 볼 수 있다. 주변에 우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시

에서는 멀리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득신(1754-1822)의 '시골양반집'에는 행주치마를 입고 갸신을 신은 아낙이 집밖에서 떠온 물동이를 이고 아이와 함께 마당에 들어서고 있다. 마당에는 노비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가마니를 짜고 있고 주인은 그 모습을 대청마루에 누워 감독하듯 바라보고 있다. 물 떠오는 여자는 옷차림으로 보아 가내노비로 보인다. 시골에서도 물은 집밖에서 길어다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화에 의하면 물은 공동우물이나 개울물을 사용하고 있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전하는 '경적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에 한 여인이 개울가에 나와 앉아 물단지에 물을 퍼담고 있다. 김홍도의 '우물가' 그림에는 공동우물에서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동이에 물을 퍼담고 있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다. 한 여인은 물을 담은 물동이를 머리에 지고 손에는 두레박을 들고 우물가를 떠나고 있고, 또 한 여인은 길가다 물을 청한 갓을 벗고 옷웃을 풀어헤친 남자에게 물을 주고 있다. 옆의 또 다른 여인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건져 올리고 있다. 가사에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개울물이나 마을의 공동우물물을 길어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남성을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래도 회화에서 보면 개울이나 계곡과 같은 집에서 비교적 먼 가외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김홍도의 '빨래터' 그림에 계곡 바윗돌에 빨래를 올려 놓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두 아낙과 물 속에 들어가 서서 빨래를 비틀어 짜고 있는 아낙 그리고 바위에 앉아 머리를 땅고 있는 여인과 그녀의 젖을 만지고 있는 아기가 그려져 있다. 이들을 한 갓 쓴 남자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 훑쳐보고 있다. 신윤복의 '단오놀이'에도 행주치마를 두른 한 부인이 머리에 빨래감과 빨래방망이를 이고 계곡으로 가고 있다. '계변가화'에는 개울가에서 옷웃을 벗어 젖가슴을 내놓고 빨래를 너는 여인,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여인, 머리를 땅는 여인, 그리고 이들을 쳐다보는 활을 든 남자가 그려져 있다. 작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풍속화첩' '빨래터'

에도 나무 아래 개울가에 앉아서 한 여인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빨래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을 한 갓 쓴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 빨래하는 과정에서도 외부인과 만날 확률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을 길어오고 빨래하는 일 외에 여자들이 밖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는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는 것이었다. 이를 소재로 한 회화를 많이 볼 수 있다. 이한철(1808-1880)의 '세시풍속도병'에 한 여인이 머리에 먹을 것을 담은 소반을 이고 농부들에게 가고 있고 그 앞에 소년이 술병을 들고 따라 가고 있다. 김두량(1969-1763)의 '사계산수도'의 '가을겨울 전원행렬승회'에도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밥을 이어 나르는 부인과 부인을 따라가는 아이, 소반에 음식을 들고 따르는 여인이 그려져 있다. 김홍도의 '수경염출'에는 젖가슴을 드러낸 부인이 머리에 상을 얹고 그 위에는 그릇과 단지를 담은 광주리를 이고 논으로 가고 있다. 한 소년이 술단지를 들고 따르고 있고 부인 앞에는 지계에 먹을 것을 나르는 노인이 보인다. 멀리 논에는 10명의 농부가 일하고 있다. 그 옆에는 차양을 치고 앉아 감독하는 양반과 책을 읽고 있는 손자가 보인다. 작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경적도'에도 아이를 데리고 새참을 머리에 이고 경작하는 남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여인을 볼 수 있다.

점심을 먹는 풍경을 보면 여인은 농부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시중을 들거나 데리고 온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다. 조영석의 '점심'에 아낙은 농부 6명과 이들을 감독하는 갓을 쓴 마름에게 밥을 퍼주고 있다. 농부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따라 온 소년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어 부인은 농부 중 한 사람의 아내인 것으로 보인다. 김홍도의 '점심'에서는 농부 7명에게 밥과 술을 날라다 준 아낙이 한 쪽에서 가슴을 풀어 헤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그 옆에는 어머니를 따라 온 큰 아이가 밥을 먹고 있다. 김득신의 '점심'에서도 농부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 아낙이 옆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그림에 점심을 나르는 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논과 밭에 점심을 나르는 것은 조선시대에 매우 흔하게 보던 광경이었으며, 보통 농부 6-7명 분의 음식을 장만하고 운반하였으므로 매우 힘든 일과 중의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회화 속의 여인들은 일할 때 자녀를 돌보기도 하였다. 농부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줄 때 뿐 아니라 노비나 고용인으로서 타가에서 일할 때, 들에서 일할 때, 구경을 나올 때도 자녀를 동반하고 있어 다중적으로 가사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홍도의 '모당 홍이상 평생도' 중의 '회혼식'에 음식준비를 맡은 것으로 보이는 행주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마당에 서 있다. 마군후(18세기-19세기)의 '나물캐는 여인'에는 한 여인이 나물을 캐다가 나무 밑동에 앉아 아이에게 젓을 먹이고 있다. 조선시대 육아는 가내외에서 여성들이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일상적으로 늘 함께 하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가외에서의 경제활동

1) 농·어업 생산활동

조선시대에 농사짓기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일이었지만 여성도 가정과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농사에 기여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평민이나 노비층으로 힘이 드는 밭갈이는 남성이 주로 하고 여성은 주로 김매기를 하였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생산활동 중 직조는 남성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 일의 영역에 성역할 구분이 명백히 존재하였지만 논농사에서는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농사를 지어 역할구분이 분명치 않았다. 회화에서는 여자들이 남자 농부들 속에 섞여 함께 모를 내고 김을 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한철(1808-1880)의 '세시풍속도병'에 여자 6명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고 여자들 앞에서는 남자 농부 6명이 농악놀이를 하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이들을 감독하는 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동자를 데리고 서 있다. 감독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사를 짓는 여성들은 가내노비이거나 고공노비들

로 추측된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전하는 '경직도' 그림에도 남자와 함께 논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보인다. 농부 5명과 여자 3명이 논에 모를 심고 있고 저 멀리에는 농부 5명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점심을 가져온 아낙이 퍼주는 점심을 먹고 있다. 논 가운데 샷갯을 쓰고 지팡이를 진 남자가 농사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하고 있는 여자들은 역의 의무를 지고 일하는 노비이거나 품을 파는 여자들로 보인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전하는 '농가시찰도'에도 밭에서 김을 매는 남자 농부 7명 속에 여자가 한 명 포함되어 있다.

논뿐 아니라 밭에서도 여성이 일하는 것을 그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윤두서(1668-1715)의 '나물캐기'에는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맨 두 여인이 산비탈에서 나물을 캐고 있다. 윤용(1708-1740)도 '나물캐는 아낙'을 그렸는데 썩이를 들고 나물캐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있는 아낙은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고 깊신을 신고 있어 육체노동에 단련된 상민이나 노비계층의 여성으로 보인다. 마군후(18-19세기)의 '나물캐는 여인'에도 봄날 한 여인이 호미로 나물을 캐고 있고, 한 여인은 나무 밑동을 깔고 앉아 아이에게 젓을 먹이고 있다. 김홍도의 '춘경우경'에는 아이를 업고 나물을 캐는 부인이 보이고, 옆에서는 농부가 소를 끌며 쟁기질하고 있다.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행려풍속도' 중 '채미'에는 분홍치마에 회장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야산에서 나물을 캐러 호미를 들고 있고 그 옆에는 아이를 업고 또 다른 아이는 걸리고 나온 여인이 켈 것을 찾고 있다.

여성들은 가외에서 흔히 남편의 생업운동을 보조하였던 것 같다. 농사짓기 뿐 아니라 어업에도 남편과 더불어 종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영석의 '어선도' 그림에 어부 남편이 그물에 쓸 실을 꼬고 있는 동안 부인도 선상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옆에는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돌보고 있다.

2) 상업활동

상업활동은 내외법에 따라 남성의 일이었던 것으로 알기 쉽지만 회화에서는 여성이 상업활동을 하

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은 가외의 장소인 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였다. 김득신의 '장터가는 길'에는 장터로 향하는 무리 중에 머리에 광주리를 인 여인 한 명이 남자 7명 어린 소년 2명과 함께 그려져 있다.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행려풍속도' 중 '행려부녀자'에는 보따리와 소반을 머리에 이거나 들고 무리지어 장에 갔다오는 여인들로 추정되는 4명이 그려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여인이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한 남자와 가고 있다. 김준근의 '장터'에는 장에 사고팔러 나온 사람이 50여명 그려져 있는데 이 중에는 여인이 8명 섞여 있다.

상업에 종사하는 여인들 중에는 남편의 생업을 보조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행상을 하는 여성도 있었다. 김홍도의 '장터길'에는 아기를 업고 광주리를 머리에 인 부인이 지게를 진 남편과 장터로 가고 있다. 상인 남편을 따라 부인도 같이 장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윤복의 '어물장수' 그림에는 남편없이 한 부인이 생선이 담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는 채소 바구니를 메고 또 다른 행상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 중 '매엽파행'에는 소금을 팔러가는 여인이 6명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짚신을 신고 있고 머리에 광주리와 단지를 머리에 이고 있다. 이들 여인들 중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무리를 따르고 있는데 지게를 진 남자가 한 명 포함되어 있어 남편과 동행한 여성이 있다 해도 한 명 뿐인 것으로 추정된다. 행상하는 여인들은 주로 자가 생산물이나 소금을 팔러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여인들이 행상하는 모습은 김홍도의 '기노세련계도'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는 계획모임을 하는 64인의 갖을 쓴 남자들과 계획장 주위에 몰려든 257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에 아낙 3명이 머리에 먹을 것을 이고 다니며 팔고 있다. 김홍도의 '부벽루연회'에도 수십여명의 구경군 중에 머리에 먹을 것을 이고 다니며 파는 아낙 3명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쪽 언덕에서는 한 여인이 앉아 남자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있다.

술파는 여성의 모습은 회화에서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김득신의 '태수의 행차'에는 시골 산길에 터를 잡은 노파가 나뭇꾼 2명에게 술을 팔면서 돌 화덕에 올려진 단지 속을 짓고 있다. 김홍도의 '노방노파'에도 산길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나그네를 상대로 술을 파는 노파가 그려져 있다.

여인들은 길가에서 술을 파는 일뿐 아니라 주막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주막은 대부분 가옥 일부의 길에 접한 쪽에 상을 놓고 손님을 받았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막에서 생활하면서 손님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자미상(게르트루트 크라센 소장)의 19세기 중후반 '경직도' 중 '논갈이와 누에치기'에 한 아낙이 주발을 진열해 놓은 주막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남자 손님 두 명이 상을 받고 앉아 있다. 신윤복의 '주막'에는 술 국자를 떠주는 부모와 주막에 들린 다섯 명의 사내가 그려져 있다. 김득신의 그림 '주막'에는 두 채의 주막이 보이는데 한 주막에서는 부모가 길가로 낸 상점에 술단지과 그릇을 놓고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소를 몰고 온 농부가 술값을 치르려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다. 부모 뒤로 한 아이가 방안에서 내다보고 있다. 다른 주막에도 길가 쪽으로 낸 자리에 부모가 앉아 있고 남자 두 명이 주막에 쉬어가려고 집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 소년이 손님이 타고 온 나귀를 매려는 듯 잡고 있다. 김홍도의 '주막'에는 주막집 여인이 단지의 음식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고 그 옆에는 아이가 조르듯 붙어 있다. 담뱃대를 문 남자가 술값을 내려는 듯 돈을 꺼내려 하고 다른 한 남자는 그릇을 기울여 국을 떠먹고 있다. 김준근의 '주막'에는 길가던 나그네 둘이 주막에 들러 점심을 시킨 듯 길가에 문을 낸 방에 앉아 있고 주막의 아낙은 안채의 부엌에서 마가지에 쌀을 씻고 있다.

3) 특수적 활동

조선시대 여성 중에는 가외에서 특수한 직업을 수행하며 생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천민으로서 궁이나 관에서 궁녀, 기녀, 의녀, 관비로 일하였고, 무녀로서 또는 유녀로서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이었지만 인구비로 볼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을 논의하는 것은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궁녀는 양인(良人)이 뽑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각사(各司)의 종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왕족이나 관리의 시중들기를 하였다. 관에서 일하는 관비(官婢)들은 장공인(匠工人)이나 의녀(醫女), 기녀(妓女)로서 일하였다. 이들은 국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질병치료, 위안하는 업무, 접대 등의 일에 종사하였다. 신역(身役)과 납공(納貢)의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 고립제(孤立制)로 바뀌면서 임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였다(김성희, 2002).

궁내의 회화에서 궁녀의 모습은 궁중과 관아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녀들이 관리를 시중들고 연회에서 수발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다. 1795년에 그려진 김득신 의의 '화성능행도병' 중 '봉수당진찬'에는 궁녀와 기녀로 보이는 70여명이 춤을 추고 관리를 접대하고 있다. '득중정어사'에는 궁녀 30여명이 가마 옆에 대기하고 있고, 1829년에 그려진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기축년진찬도병' 중 '자경전내진찬'도에는 300여명의 궁녀와 기녀가 배열해 남자 악사와 더불어 춤을 추고 있다.

기녀는 의약이나 침선의 기술과 가무의 기예를 배우고 익혀 국정운영상 필요한 일에 참여하던 여성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관청에 소속된 관비였고 조선 초기에는 부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녀도 기녀였다. 이들은 남성 접대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방기생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궁중 내의 잔치나 외국 사신을 환영하는 잔치에 필요한 여악을 담당하였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회화에서 기녀가 외국 사신을 응접하고 관리를 수행 등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세기에 그려진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래부사접왜사도'에 기녀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응접하고 있다. 왜국의 사신을 응접하러 가는 행렬 속에 기녀 8명이 보이고, 도착 후 연회 장소에는 춤을 추는 기녀가 7명 보인다. 김홍도의 '태수의 행차'에서는 남여(藍輿: 가마)를 타고 가는 태수의 뒤를 머리에 먹을 것을 이고 가는 관비가 따르고 있고, 태수 옆에는 관기가 담뱃대를 들고 거드름을 피며 걷고 있다. 관리들과 더불어 관비와 기녀가 태수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홍도 작으로 추정되는 '평양감사향연도' 중 '월야선유'에는 평양감사 주변에 기녀 4명이 다른 관리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관리들이 타고 있는 여러 척의 배 중에도 15명의 기녀가 탄 배가 포함되어 있다. '부벽루연회'에는 50여명의 기생이 춤을 추고 있고 관리와 갓을 쓴 남자 수십여 명이 이를 관람하고 있다. '연광정연회'에는 춤을 추는 기녀 10여명과 음식을 나르는 관비를 볼 수 있다.

관리들의 모임에도 기녀나 관노비가 참석해 음식 수발을 들고 가무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730년에 그려진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원기회도'에도 남자 사대부 40명이 모여 각각 반상을 받고 있는데 이들 앞에 5명의 무용수가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고 기녀 15명이 악기를 연주하며 시중을 들고 있다. 1814년 작품인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수갑계첩'에는 22명의 남자 사대부가 앉아 있고 가운데에 악기를 연주하고 술시중을 드는 남자가 9명, 소리를 하는 여자가 1명 앉아 있다. 대청 아래 부엌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행주치마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 여인이 두 명 보이는데 이들은 관비로 보인다.

기녀는 관이 아닌 기방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기방쟁웅'에는 기방에서 기녀와 담소를 나누거나 술해 취해 있는 7명의 남자가 그려져 있다. 기방에서 일하는 기녀의 모습은 신윤복의 '홍루대주'에서도 볼 수 있다. 남자 세 명과 기녀 한 명이 방안에 앉아 술을 기다리고 있고, 한 여인이 벌거벗은 아이의 손을 잡고 술병을 들고 문에 들어서고 있다.

기녀가 가외의 사적인 자리에 참석해 유희를 돋우며 생업으로 삼는 것을 그린 회화는 적지 않다. 김득신의 '계회'에는 야외에서 다섯 명의 남성이

기녀 두 명과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시중드는 여인과 소녀도 볼 수 있다. 김희겸이 1748년 그린 '석천한유'에는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를 지낸 무인(武人) 전일상이 누각에 앉아 칼을 매달아 놓고 오른손에 매를 잡고 앉아 관기 4명으로부터 담배시중과 술시중을 받으며 가야금을 듣고 있다. 신윤복의 '뱃놀이'에는 양반 세 명이 기녀 세 명과 배를 타고 있고 '후원놀이', '화류놀이'에도 모두 기녀가 등장하고 있다. 필자미상의 18세기에 그려진 '후원유연'(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는 후원에 돛자리를 깔고 앉은 기녀 한 명과 남자 두 명이 술을 앞에 놓고 거문고를 타고 담배를 피우며 담소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 부인과 소녀가 소반에 먹을 것을 담아 날라주고 있다.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9세기 '풍속도' 중 '야연'에는 기녀 2명이 남자 5명과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흥을 돋우고 있다.

회화에서는 무녀로 일하는 여성도 볼 수 있다. 무는 무격신앙을 담당하며 일하였다. 이들은 조선 정부의 탄압의 대상이 되면서도 무세를 납부하여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목민심서에 '세 집이 있는 마을에 모두 무녀가 있다(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연구실, 2000 재인용)'고 할 만큼 조선시대에 무녀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적지 않았다.

신윤복의 '무녀신무'에 춤추는 무녀와 장구치는 남자, 피리를 부는 남자, 굿을 청한 두 명의 여인들과 소녀, 담너머로 구경하는 남자가 그려져 있다. 김준근의 '무녀굿'에도 비슷한 광경이 그려져 있다. 무당이 춤을 추고 한 남자가 장구치고 한 소년이 징을 치며 장단을 맞추고 있고, 굿을 청한 여인 네 명이 굿을 보고 있다.

조선시대 여성은 유녀로서 길거리에서 가무를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있었던 것 같다. 인생의 모든 생업을 그림에 표현한 감로탕화 중 1736년에 그려진 선암사 감로탕화와 1759년의 봉서암 감로탕에 유랑 극단의 일원으로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다.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9세기 '풍속도'의 '가두매집'에는 두 명의 여자가 두 남자가

치는 북과 한 남자가 부는 피리에 맞추어 길거리에서 부채를 들고 춤을 추고 있고 이들을 길가던 남자와 아이 엮은 노파가 구경하고 있다. 필자미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풍속화첩'의 '재인'에 염주를 목에 걸고 부채를 들고 있는 여인과 북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보인다. 이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놀이를 하던 유랑자로 추정된다. 김준근의 '사당관놀이'에는 패를 지어 유랑하며 노래와 춤을 파는 무리 속에 소고를 치는 두 남자, 춤을 추는 한 여자, 네 명의 구경하는 남자로부터 치마 폭을 들어 올려 돈을 걷고 있는 한 여자를 볼 수 있다.

3. 가외에서의 여가생활

조선시대 여인들의 가외에서도 여가를 보냈다. 회화에 나타나는 여가생활로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거나 동자를 동반하고 또는 홀로 나들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절에 가거나 곳을 보러 가기, 달구경하기 그네뛰기, 널뛰기, 관아행렬을 구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자미상(게르트루트 크라센 소장)의 19세기 중후반 '경직도' 중 '논갈이와 누에치기'에 주막집 앞을 한 가족이 지나가고 있는데 부인은 쓰개를 쓰고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소를 타고 그 옆을 아기업은 남편이 걸어가고 있다. 저 멀리에는 샷갯을 쓴 여인이 동자를 데리고 말을 타고 가고 있다. 김홍도의 '소를 탄 촌부'에도 쓰개를 쓰고 어린아이를 안고서 소를 타고 길을 가는 아낙을 볼 수 있다. 그 옆에 갯을 쓴 남편이 아이를 업고 따르고 있다. 19세기에 그려진 작자미상(호암미술관 소장)의 '경기 감영도'에는 머리에 쓰개를 쓰고 지나가는 두 여인과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가는 두 여인, 홀로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노파가 그려져 있다. 신윤복의 '처네 쓴 여인'에는 처네를 쓴 여자가 홀로 나들이를 하고 있다.

여인들은 절을 찾아가거나 무녀를 찾아 나들이를 하기도 하였다. 신윤복의 '부녀자들의 나들이'에는 장옷을 입거나 쓰개와 샷갯을 쓴 6명의 부녀가 산중에서 스님을 만나고 있다. '무녀신무'에는 무녀를

찾아온 듯한 쓰개를 쓴 여인과 두 여인, 이들을 따라 온 소녀를 볼 수 있다. 김준근의 '무녀굿'에도 곳을 청한 여인 네 명이 무녀의 곳을 보고 있다.

여인들은 세시풍속으로 정한 날 가외에서 여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작자미상(게르트루트 크라센 소장)의 19세기 중후반 '경직도' 중 '달구경'에는 대보름날 집안에서 담너머로 달을 구경하는 여인과 더불어 들판에서 남자들과 섞여 달을 보는 부인들도 보인다. 옷차림의 차이로 보아 집안에서 달구경하는 여인들은 양반 여성으로 보이며 들판의 여인들은 상민 여성으로 보인다.

신윤복의 '단오놀이'에서는 단오날 여인들이 개울가에서 반나로 몸을 씻고, 그네를 타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김준근(19세기)의 '단오추천'에는 소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고 주변에는 부채를 든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인, 술을 파는 아낙, 엿을 파는 남자가 그려져 있다. '널뛰기' 그림에서는 긴 널빤지를 중간에 괴어 놓고 양쪽 끝에서 뛰어 오르는 부녀자와 구경나와 선 부인들 모두 8명이 가외에서 널뛰기로 여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아의 행사가 있을 때도 여인들은 무리지어 길가에 구경을 나왔다. 19세기 작자미상(호암미술관 소장)의 '경기감영도'에 행사의 긴 행렬을 보기 위해 아이를 업거나 데리고 나와 선 아낙들, 아이를 안고 나온 부인들을 볼 수 있다. 김홍도의 '부벽루연회'에서도 수십여명의 구경군 중에는 동네 아낙이 4-7명 정도 모여 구경하고 있다.

V. 결 론

여성의 삶을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선시대에 존재하였던 내외규범이 실제 여성의 일상생활에 미친 통제의 범위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외법이 강화되었던 조선후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일상을 가사노동·경제활동·여가로 나누어 가내외에서의 생활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여성은 내외규범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가내뿐 아니라 가외에서도 가사를 위한 일과 생업 및 가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였고 여가생활도 영위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사노동으로 곡식찧기, 음식 조리하기, 직조하기, 농부들에게 점심을 날라다 주기, 바느질, 다림질과 다듬이질, 자녀돌보기를 하였고 혼례나 회혼례, 돌잔치와 같은 가정의례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을 하였다. 경제활동으로는 자가소비를 위해서 뿐 아니라 가계운영과 조세납부를 위해 직조노동과 농사짓기를 하였으며 뽕잎을 따고 목화를 따는 일을 하였다. 장에 나가 물물교환을 하거나 사고파는 일, 행상을 하기도 하였고 주막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궁녀와 의녀, 무녀, 유녀로 생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여가가 있을 때에는 다른 가정의 의례에 참석하거나 가외에서 그네와 널을 뛰고 달구경을 나가거나 절에 나들이를 나갔다. 가사로써 여가를 소일하기도 하여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지만 노동은 대부분 혼자 일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두 명 이상이 협력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주거나 업어주는 등 자녀돌보기는 주부가 노동을 할 때 같이 수행되기도 하였는데 할머니나 자녀 등의 가족이 조력하기도 하였다.

회화에 의하면 조선시대 여성은 가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곡식찧기, 밥짓기, 다림질과 다듬이질, 바느질, 혼례 등의 가정의례는 가내에서 수행하였지만 물김기와 세탁 등의 가사노동을 포함해 타가의 가정의례 참석하기, 농사짓기, 밭일하기, 나물캐기, 뽕잎따기, 타가의 가사돌보기, 장보기, 행상하기, 주막경영, 술팔기, 궁이나 관에서 일하기, 무녀와 유녀로 일하기 등을 가외에서 수행하였다. 세시풍속 즐기기, 관의 행사 구경하기, 구경, 절 방문 등으로 문밖을 나서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가사노동은 가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회화에서는 거리에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여인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야외에서 빨래하는 여인도 많이 볼 수 있다. 물김기와 세탁은 거의 모든 일반여성이 하던 일이었고 일상생

활에 비중이 큰 일이었으므로 여성이 가외에서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점심을 갖다주는 일, 밭에서 일하거나 논에서 김매고 모심는 일, 목화를 따거나 뽕잎을 따는 일, 장에 사고팔러 가는 일도 하였으므로 궁녀나 기녀·무녀·유녀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일하던 특수직 여성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여성도 일상적으로 가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가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므로 내외법이 의도한 남녀 상면 기회의 박탈은 실제에 있어서는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문헌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회화에서는 노동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외부남성과 만나는 여성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물을 길고 있는 여성에게 물을 청해 마시고 있는 옷깃을 풀어헤친 남성, 숲속 개울가에 혼자 앉아서 빨래하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냥하는 남성, 다리를 드러내고 계곡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훑쳐보는 것 쓴 남자, 밭에서 목화를 따고 있는 여성을 엿보며 지나가는 남성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조선 여성들은 흔히 집 밖으로 나들이할 때 보통 쓰개를 착용하였지만 물을 떠오거나 짐을 일 때와 같이 일할 때는 쓰개없이 다니기도 하였다. 규범적으로는 이성과의 접촉을 금하려는 목적에서 내외법이 존재하였지만 일상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잦은 가외활동과 쓰개사용의 한계로 내외법의 목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내외법이 지배층인 양반여성에게 강조된 규범이었다 하더라도 양반 여성에게도 외출 기회가 적지 않았고 이성과 상면할 기회도 적지 않았다. 회혼식, 결혼식, 돌잔치 등의 가정의례가 드물지 않은데다가 행사도를 보면 참가한 여성의 수가 수십명에 달하고 있어 가족간 방문을 위한 외출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행사시에도 수십명의 남성과 대청에서 열린 행사에 동시에 참여하였고 이 때는 쓰개착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이성이 적지 않았다. 친족 외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행사시 여성과 남성 집단이 좌우로 분리되어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는 적었지만 여성은 적지

않은 남성과 대면할 수 있었다.

내외법에 따라 활동 범위가 가내에 국한되었다고 봄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은 가사노동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조선시대 여성은 가내에서 직조로써 가계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회화에 나타나는 여성은 가외에서 남성과 더불어 농사를 지음으로써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밖의 외출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여성들도 장에 나가 사고팔기를 하였다. 일상의 자가생산물을 교환할 목적에서 장에 가기도 하고, 전적으로 상업활동을 위해 사고팔기를 하기도 하였다. 어물이나 소금, 술을 파는 여성, 행상하는 여성, 가옥의 일부를 주막으로 경영하는 여성을 회화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궁녀와 기녀, 무녀, 유녀와 같은 특수한 일을 하는 여성들도 회화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궁궐이나 관가와 같은 공적 장소에서 전문적인 생산활동과 시중들기를 하거나 사적인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여 유흥 돋우기를 하였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접대와 위안을 담당하는 보조적인 일이 이들의 주요한 일이었지만 이들의 일은 국가와 기관, 사가의 운영, 타인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이었고 이의 댓가로 생계를 보장받거나 임금을 받았으므로 이들의 일은 명백히 경제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궁녀, 기녀, 무녀, 유녀를 포함하는 천인의 인구비가 조선중기에는 전 인구의 30-50%를 차지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수가 증가하여 천인의 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도 결코 적지 않은 여성이 가외에서 생업을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회화 속의 조선시대 여성들은 성리학적 규범이 사회전반에 보급되는 조선후기에도 내외법이 통제하는 공간적 영역인 가외에서 가사노동과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시대 여성이 집안에만 갇혀 폐쇄적으로 가사노동만 하고 지냈다고 보는 견해는 현실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규범을 일상으로까지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초기 자유로웠던 일반 여성의 생활은 조선후기에도 그 풍속이 유지

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일부 지배층 가족의 폐쇄된 생활이 일반인에게까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성역할 교육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에만 근거하여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왜곡시켜 교육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편협적으로 보게 할 수 있다. 전통사회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구분은 가내와 가외의 공간적 영역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직조는 남성이 하지 않던 생산활동이었으므로 생산영역에서 성역할 구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이 가내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역할의 종류도 가사노동 수행자로서 단순했다고 보는 조선시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재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산업화 초기 여성과 남성의 영역이 가정과 일터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을 전통사회 여성에게까지 확대시킨 오류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소혜(1999).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타난 일하는 장면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중앙박물관(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2003).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와의 만남.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김기복(2001).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상 표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희(1999).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49-158.
- 김성희(2000). 조선시대 비자의 경제활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4(1), 69-78.
- 김성희(2001).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67-82.
- 김성희(2002). 전통사회 여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25-36.
-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 신정.
- 김영호(1972).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171-216). 서울: 대동문화연구원.
- 김용만(1997).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서울: 집문당.
- 김용섭(1972). 18·19세기의 농업사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 19세기의 한국사회 (171-216). 서울: 대동문화연구원.
- 박재환(2000).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21-43).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백영자(1998).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 신혜원(1998).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휘준 편저(1986). 국보 19(회화 1). 서울: 예경산업사.
- 안휘준 편저(1986). 국보 20(회화 2). 서울: 예경산업사.
-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1999).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유소희(1994). 오륜행실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경(1983).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열수(2000). 민화(1). 서울: 예경.
- 윤열수(2000). 민화(2). 서울: 예경.
- 이태호(2000). 풍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 이태호(2000). 풍속화(둘). 서울: 대원사.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90).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세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영미(1997). 한국의 복식문화(2). 서울: 경춘사.
- 정병모(1991). 조선시대 후반기의 경직도. 미술사학연구, 192, 36-38.
- 정병모(2001).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 정연식(2001).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 서울: 청년사.
- 조효순(1995).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 조희진(2003). 선비와 피어싱. 서울: 동아시아.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 8(민화). 서울: 중앙일보사.
 지승중(1997).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서울: 일조각.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2000). 우리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한국역사연구회(1997).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황세은(2002). 조선후기 풍속화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四方 博(1937). 조선인구에 관한 일연구. 경성제국대학법학회편. 조선사회법제사연구 (56-73). 동경: 암과서점.
 Utrio, Kaari, 안미현 옮김 (2000). 이브의 역사. 서울: 자작.
 Lefebvree, H.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t. 2.* Paris: L'Arche Editeur.

(2004년 1월 15일 접수, 2004년 5월 13일 채택)